



2004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 대성황

본회가 국내 양돈 산업의 생존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2004년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가 9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대전 유성 소재 신용협동조합 연수원에서 전국의 양돈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88페이지 참조)

본회,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안) 제출

-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설립(안) 등 제시
본회는 9월 6일 5개 분야 양돈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T/F팀에서 공청회와 심층토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한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안)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양돈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과 유통 방안을 마련키 위해 양돈농가, 공공처리장, 경종농가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및 '분뇨처리 중앙지원본부'를 내년부터 설치·가동하는 운영제도 지원대책을 세부추진계획(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아울러 HACCP, 생산이력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대책, 개방화에 대비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과 지역

특화를 강조한 로컬브랜드 육성 계획,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안과 질병 방역대책, 양돈농가 조직을 통한 공동구매 및 OEM 사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대책 등도 함께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정부,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도입키로

-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자문회의 열려

최근 본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양돈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안)에서 제시한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도입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사실상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의 도입이 확정되어 그동안 양돈인의 가장 큰 현안인 '양돈분뇨'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3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자문회의'에서는 T/F팀이 세부추진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지원사업'이 특히 핵심사안으로 떠올라 통합관리운영센터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됐으며,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안)에서도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밖에 유기질 비료 가축분뇨 한정 요구 및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환경부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축산분뇨 관리 추진기획단을 해체한 후에도 동일 성격의 위원회 등을 유지할 것과, 친환경 농업에는 가축분뇨 이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Codex 기준이 아닌 한국형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토론의 핵심내용으로 대두됐다.

“배합사료내 구리·아연 함유량 현행 수준 유지해야”

- 사료공정서 고시 개정(안) 관련 업계 관계자 의견 제시

본회는 최근 농림부에서 마련한 사료 공정서 고시 개정(안)에 대해 과거에 사료공정서 개정시 NRC 사양표준, EU 기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된 수치이므로 사료공정서의 구리, 아연 함유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근본적으로 가축분뇨 발효액비에 대한 비료공정을 폐지할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사료공정서 개정(안)이 제기된 이유는 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사실 사료공정서 보다는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구리와 아연의 최대 함유량이 잘못 책정되어 있고 비료공정규격은 실제로 적용하지도 않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가축분뇨발효액비에 대한 비료공정을 폐지 또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회는 사료공정서 개정(안)에서 양돈용 배합사료중 구리와 아연의 함량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구리와 아연 함량 수준은 유럽의

수준과 비슷한데도 유럽에서는 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의 과다검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대책없이 구리와 아연 함유량을 감축할 경우 돼지 생산성 저하, 질병 발생 증가로 항생제 사용이 증가되고 축산물 안전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농림부에서는 사료공정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양돈용 배합사료 중 구리는 찌꺼기 및 찌뎀돼지용이 170ppm이하에서 125ppm이하로, 육성돈용은 130ppm 이하에서 45ppm이하, 비육돈 및 종돈용은 35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개정했으며, 아연의 경우에는 찌꺼기 및 찌뎀돼지용 120ppm이하, 육성돈용은 100ppm이하에서 50ppm이하로, 비육돈 및 종돈용은 90ppm이하에서 50ppm이하로 낮추는 강화안을 마련했다.

본회, 액비 중금속 검출 관련 의견 제시 및 규정 개정 요청

- 본회, 청와대에 감사원·농진청 조사요청

본회는 8월 25일 농촌진흥청장에게 액비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본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비료공정규격’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본회는 현재 액비에 대한 규정은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규정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비료공정규격’에서 액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고시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이 농진청이 설정한 ‘비료공정규격’을 기준으로 액비탱크 지원사업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이 기준이 부칙 및 해당법상 아직 시행되지도, 적용대상도 아닌 것에 대한 농진

청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본회는 감사원에도 액비탱크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청와대에 농진청이 비료공정 규격을 만들 때 충분한 주의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와 감사원에 대하여는 왜 시행되지도 않는 비료공정규격을 적용해 액비탱크 지원사업을 잠정중단 시켰는지, 그리고 액비시료 채취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분뇨 해결 위한 연구에 집중 시킬 터”

- 윤상기 축산연구소장, 본회 임원진과 간담회 서 밝혀

본회 최영열 회장 및 임원 20여명은 8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축산연구소를 방문하고 윤상기 축산연구소장 및 권오섭 양돈과장 등 각 과장들과 양돈산업 발전방안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상기 축산연구소장은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축산분뇨 해결을 위한 기술 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본회, 분뇨악취 해결책 적극 모색키로

- 가칭 '축산환경대책위원회' 구성 방침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적용이 2004년 2월 본격 시행되게 됨에 따라 본회는 악취방지법 적용시 축산업이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본회는 이를 위해 10월중 축산 분뇨 및 악취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양돈장 냄새 저감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유예기간 조치 등 대책과 악취방지법 적용시 인체에 무해한 냄새가 발생하는 축산업이 완화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본회는 또한 정부에 축산업의 특수성을 적극 설명하고, 양돈농가와 인근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및 양돈장 냄새 저감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법 적용의 유예기간 조치 등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도축장 사용전력 '농사용' 적용 마땅

- 본회, 농림부·산자부에 건의서 제출

본회는 축산물도축장이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의무적용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어 운영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며 도축장 사용전력을 '농사용'으로 적용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도축업이 제조업이라며 산업용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회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RPC업체의 건조, 공정과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은 현재 농사용전력(병)을 적용 받고 있다.

본회, 위축돈 판매·유통 자제 요청

본회는 최근 각도협의회 및 지부(회)에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을 위해 위축돈 사육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들이 가급적 위축돈을 조기도태하고 도축장 외 일반상인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8월 30일~9월 2일 위축돈 전문사육농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2농가에서 양돈장 등으로부터 위축돈만 시중가격의 1/3수준에 구입해 일정기간 사육 후 제비용 등 전문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질병의 차단과 국민보건을 위해 '위축돼지 등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종돈장과 양돈장의 위생 및 방역사양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본회, 제1검정소 이전기로 결정

- 제4차 이사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회장단 일임

본회는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오목천동 소재 축산연구소에서 최영열 회장을 비롯해 김동환·윤주성 부회장 등 임원단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제4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들은 협의사항에 앞서 제1검정소 이전과 관련, 긴급 동의(안)으로 올리고, 현대화된 검정시설과 차단방역 위주의 검정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맞는 장소를 물색해 검정소를 이전하기로 의결하고, 1검정소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사들은 부의 안전으로 조직의 책임강화와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팀"을 "부"로 환원하고, "과"를 "팀"으로 변경하는 직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80억원에 이르는 양돈자조금 사업 세부 계획(안)과 2004년 추경 예산(안), 종돈능력검정소 검정

실용선발지수 활용(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 PMWS실태조사 사업 등 공모자 선정

본회는 8월말 양돈자조금 사업과 관련한 '2004년 양돈자조금 조사연구사업'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9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최영열 본회장, 석희진 축산물위생과장, 김동환 부회장, 김운철 축산지원부장, 정일병 중앙분석센터 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모안을 심사했다. 양돈선진국의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분야에는 건국대학교를, 돼지고기 소비촉진 및 수출전략 개발 분야에는 한국육류유통수출입분회를 선정했다. 한편 양돈장 PMWS실태조사 분야에는 강원대학교가 선정했다.

돼지 사육규모 "지금처럼"

구분	인원	비율
확대할 계획이다	180	22%
현재 규모 유지	458	55.9%
축소할 계획이다	47	5.7%
그만 할 계획이다	126	15.4%
기타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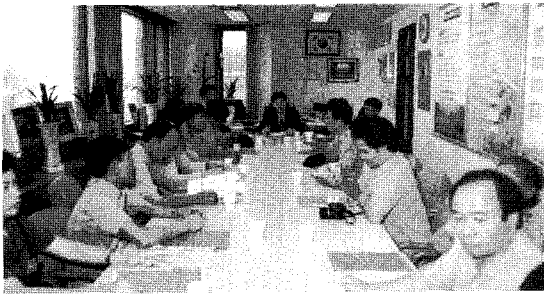
양돈농가들은 향후 1년 내 돼지 사육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회가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는 향후 1년내 돼지사육규모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총 819명의 응답자 중 458명이 '현재 규모 유지'라고 응답해 전체의 55.9%를 차지하면서 현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에도 전체의 22%가 답변하면서 현재규모를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계획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축소할 계획이다'가 5.7%, '그만 둘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15.4%를 차지하는 등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분뇨처리 문제 등도 양돈농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트남 수의대표단 본회 방문



본회의 초청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수의대표단 16명이 지난 9월 1일 본회를 방문하고 최영열 회장과 만나 국내 양돈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최영열 회장은 베트남 수의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양돈산업을 소개하며,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돈산업간의 기술적인 교류가 활발해 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베트남 수의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선진 수의·축산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8월 30일 입국해 9월 4일까지 한국에 머물고 돌아갔으며,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제일제당 사료공장, 남양유업 유가공장,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다비육종 농장 및 김제 육가공장, 농림부 등

을 방문했다.

본회 제1·2검정소, '04년 상반기 검정사업 계획대비 100%이상 달성

2004년도 본회 제1검정소와 2검정소의 검정사업이 계획 대비 100% 이상을 달성했다.

제1검정소(소장 강왕근)의 2004년도 상반기 검정소 검정 입식 계획대 실적은 총 1,128두 입식 계획에 1,130 두를 입식해 100%를 달성했으며, 경매 계획대 실적은 검정 종료두수 1,075두중 842두가 합격해, 총 743두가 경매되어 계획(768두)대비 97%를 달성했다. 2004년도 상반기동안 경매가격은 평균 82만4천106원을 기록했다. 검정성적은 수컷의 경우 총 762두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1,082g, 등지방두께 1.43cm, 사료요구량 2.16kg, 선발지수 240점, 90kg 도달일령 134일을 기록했다. 암컷은 313두의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1,027g, 등지방두께 1.40cm, 사료요구량 2.24kg, 선발지수 233점, 90kg 도달일령 140일을 기록했다.

한편 제2검정소(소장대행 홍성광)의 2004년도 상반기 검정소 검정 입식 계획대 실적은 총 1,128두 입식 계획에 1,138두를 입식해 101%의 초과 달성률을 보였으며, 경매 계획대 실적은 검정 종료두수 1,388두중 1,139두가 합격되어 이중 총 929두가 경매되어 계획(780두)대비 119%의 초과 달성률을 기록했다. 검정성적은 수컷의 경우 총 890두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1,076g, 등지방두께 1.41cm, 사료요구량 2.26kg, 선발지수 236점, 90kg 도달일령 135일의 성적을 보였다. 암컷은 334두의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985g, 등지방두께 1.49cm, 사

프랑스 PMWS 전문가 마덱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10월 26일~28일까지 3개 권역에서

본회는 최근 국내 양돈장에서 돼지 이유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PMWS)에 의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PMWS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세계적인 PMWS 전문가인 프랑스 마덱(Madec)박사를 초청해 10월 26~28일까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회는 10월 26일 전북대 진수당 컨벤션홀에서 호남지역 세미나를 갖고, 10월 27일 진주산업대 농학1호관 세미나실에서 영남·제주지역 세미나를, 10월 28일 경기 오산 소재 롯데연수원 대강당에서 중부(경기·강원·충청)지역

PMWS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마덱 박사 초청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는 PMWS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명확한 대책이 없으므로, 해외 PMWS 예방·퇴치 사례와 동 질병에 대한 마덱 박사의 연구 실적 등을 국내에 소개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PMWS 예방과 퇴치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채찬희 교수의 국내 PMWS 발생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료요구량 2.36kg, 선발지수 221점, 90kg 도달일령 141일의 성적을 기록했다.

본회, 검정돈 '실용선발지수식' 10월부터 적용

- 등지방두께 적정한 개체로 전환 효과 기대

본회는 10월부터 현행 검정돈 선발지수와 새로 개발한 실용선발지수를 병행해 표기한다.

본회는 최근 등지방이 너무 얇아 모든 연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검정돈의 등지방이 낮을수록 선발지수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한 '실용선발지수식'을 개발하고, 이 지수식이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 및 검정소 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실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10월 경매돈부터 실용선발지수도 기존의 선발지수와 병행해 표기해 농가들이 검정돈 구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회가 정P&C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실용선발지수식'은 등지방의 적정치(수돼지 1.25cm, 암돼지 1.4cm)를 최고점으로 절대치 기준 0.1cm 증감에 따라 3점씩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검정돈에 대한 선발지수의 신뢰성 확보와 구입자의 종돈구매 추세에 부합, 종돈장의 기본축이 등지방이 높은 개체로 전환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기존 검정성적의 연계성을 감안해 보다 새로운 선발지수식이 개발될 때까지 현행 선발지수도 병행해 표기할 계획이다.

'제9회 검정돈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개최

- 제1검정소, 9월20일 경매에 맞춰

본회 공인 제1종돈능력검정소(경기 이천)는 9월 20일(월) 제241차 검정돈 경매일에 '제9



▲최우수 양돈농가 봉화지부 양진선씨(우측)

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2003년도에 경매돈을 최다 구입한 최우수 양돈농가에 봉화지부 양진선씨, 우수 양돈농가에 순천지회 황창영씨, 모범 양돈농가에 교항양돈조합법인 신상화씨·당진지부 홍사순씨·원주지부 주주호씨를 시상했으며, 검정돈을 잘 활용한 최우수AI센터에 충남 AI센터(배상중), 우수AI센터에 이천AI센터(이종영), 모범AI센터에 백월AI센터(한흥재)·당진인공수정영농조합(신민호)·동부시멘뱅크(신창엽)를 시상했다. 한편, 참가자에게 출품종돈장에서 후원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경매돈 구입자를 대상으로 대형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TV 외 가전제품 등 경품을 제공하였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85만3천원

8월 20일(금)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40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85만2천76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수퍼돈 3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7두를 포함 총 119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12두가 낙찰됐으며,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88만6천98원(82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6만1천667원(30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5점) 수퍼돈이 경북 군위군 군위를 정3리 879번지 백연농장 이병희씨에게 최고가인 6백50만원에 낙찰됐으며, 태광농장 듀록 수컷(선발지수 267점)이 2백60만원에 낙찰되는 등 낙찰총액은 9천5백51만원을 나타냈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95만7천원

9월 10일(금)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69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낙찰가는 95만7천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최우수돈 8두를 포함해 총 167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67두 모두 낙찰되는 등 양돈농가들의 종돈 입식 열기가 높았다.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8만2천982원(114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8만6천38원(53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경기양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53점) 최우수돈이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35-2번지 정동기씨(순천축협 AI센터)에게 최고 낙찰가인 2백75만원에 낙찰됐으며, 태광농장 듀록 수컷(선발지수 252점) 최우수돈이 2백5십만원에 낙찰되는 등 총 낙찰금액은 1억5천9백82만원을 기록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남·경북도협, 교체모돈 수출 위해 필리핀 조사단 파견

경남·경북도협의회 필리핀 시장 조사단인 본회 이재식 부회장, 경북도청 강삼순 축산과



장 외 9명은 8월 25~28일 4일간 교체모돈 수출 추진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한국산 돈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시찰하기 위해 필리핀 육가공 회사를 방문하고 마닐라 백화점을 찾아 냉장육 및 캔제품 유통현황을 시찰했다. 또한 필리핀 검역원장과의 간담회도 가졌으며, 필리핀 육류 재래 유통 시장 현황을 살폈다.

경기도협, 양돈산업 발전 위해 다양한 의견 개진

경기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건호)는 8월 17~18일 1박2일간 포천시 산정호수 호텔에서 경기도청 김덕영 농정국장, 조충희 축산과장, 경기2청 홍성기 축산과장, 견홍수 축산계장, 포천시청 이정열 부시장, 다비육종 이원형 대표 외 경기지역 10개 지부장 및 임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정열 부시장은 돈육브랜드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덕영 농정국장은 경기도 브랜드 상품 성공 전략과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다비육종 이원형 대표는 양돈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홍성지부, 가축분뇨 불법행위 근절 적극 협력키로

홍성지부(지부장 정일희)는 가축분뇨의 불법 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술선수범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9월 14일 홍성지부 정일희 지부장 등 관내 축산농가 1,000여명 등은 홍성군이 홍주문화회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법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처리 시설 운영 요령,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방침 등 가축분뇨의 불법적인 처리 방지를 위해 실시한 행사에 참여해 교육을 받고 가축분뇨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을 결의했다.

증평지부, 돼지고기 축제 개최

증평지부(지부장 연구원)는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보강천 시민공원에서 '제2회 증평 돼지 삼겹살 축제'를 개최한다. 돼지고기 삼겹살 무료 시식회와 돼지 바비큐 시식회를 열고, 돼지고기 요리경연 및 전시대회, 요리 10선 출품 전시 및 요리 개발 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양주지부, 양돈관련 정책 및 환절기 대책 등 논의

양주지부(지부장 조운상)는 9월 13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열 회장이 지부를 방문해 협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주시청 농림축산과 전창석 계장이 참여해 양주시의 양돈관련 산업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도드람 양돈연수원에서는 양돈 호흡기 질병의 예방법과 환절기 대책에 관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양돈**